

# 올해 5·18 35주년 ‘맥빠진 기념식’ 우려

### 오월 3단체 ‘임을 위한...’ 지정곡 문제로 보이콧 선언

### 유족·피해자 불참에 대통령·총리 없이 치러질 수도

제 35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대통령, 국무총리, 5·18 직접피해 당사자, 유족조차 없는 기념식으로 치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총리가 공식이라 대통령마저 기념식에 불참할 경우 자칫 대통령·총리가 모두 없는 상황에서 기념식이 치러질 형편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지난 1997년 이래 대통령이나 총리가 참석하지 않은 기념식은 전무했다. 여기에 5월 유공자 등은 국회가 결의안까지 채택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및 제창 문제가 2년이 지나도록 해결되

지 못하면서 기념식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가장 성대하게 치러도 모자랄 기념식이 항쟁 35년만에 최악의 상황에서 치러지게 되는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3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1997년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대통령·총리가 참석하지 않은 채 치러진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2000년)을 비롯,故 노무현 전 대통령(2003년~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2008년), 박근혜 대통령(2013년) 등이 기념식에 참석해왔고 이외

기념식에도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자리를 지켰다는 게 보훈처 설명이다.

하지만 올해 총리가 물러나 공식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불참할 경우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정치적 메시지를 기대하기는 커녕, 사상 초유의 대통령·총리 모두 참석하지 않는 기념식이 될 위기에 직면했다. 총리 내정 및 임명절차 등을 고려하면 기념식 전 총리 임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여기에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행사위원회 소속 시민단체 등이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및 제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기념식 ‘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 ‘제도 부재’, ‘갈등 우려’ 등을 들

면서 기념곡 지정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대동세상’을 열자던 5월 열사들의 정신을 국민 대통합과 민주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할 기념식이 35주년에 걸맞지 않게 가장 초라하게 치러질 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고조되는 형편이다. 5월 단체 안팎에서는 현 정부의 5·18에 대한 시각을 재확인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계기가 될 지 모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35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가 해결되고 5·18에 대한 왜곡의 벽을 넘어서는 계기가 되는 기념식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구묘역 묘비닦는 신규 공무원들 북구청 신규 공무원들이 5.18민주화운동 35주년을 앞두고 최근 망월동 구묘역에서 묘비닦기와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의사 부부 위협 전 제약회사 직원 징역 3년6개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시절 알게 된 의사 부부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흉기와 휘발유 등을 사용한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했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광주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의사 B(48)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흉기를 들이대 집 안으로 몰아 넣은 뒤 휘발유를 뿌리고 흉기로 위협해 “1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B씨 아들의 목 부위를 흉기로 그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2년간 실직해 1억원의 빚을 지고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제약회사 영업사원 근무 당시 알게 된 의사 부부의 집에서 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지인 실형 불만 40대, 법정서 판사 협박·소란

#### 광주지법 감치 20일 결정

지인의 실형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판사를 협박하며 소란을 피운 40대가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지법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A(44)씨에 대해 감치 20일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방청하다 지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5분여간 소란을 피운 것

으로 알려졌다. 이들 피고인 4명은 계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1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법정 경위 등의 제지에도 판사를 향해 “죽여버릴 거야” 등의 폭언을 하고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재판부 권유에도 소란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에 의해 법정모독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될 경우 추가 기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남광주농협·함평축협 조합장 구속

#### 금품 돌린 혐의... 동시선거 당선자론 광주·전남 처음

제 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전남지역 조합장들이 선거 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사실이 적발돼 잇따라 구속됐다. 지난 4일 조합장 선거 이후 광주·전남에서 당선된 조합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광산경찰은 3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수백 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현직 남광주농협 조합장 이모(60)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사 오모(57)씨를 구속하고, 임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 설 명절부터 지난 3월까지 조합원 900여 명에게 1만9000원 상당의 골비세트를 선물하는 등 총 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조합장 이씨는 지난 2011년 해당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100여 표 차이로 낙선

한 뒤 차기 선거를 노리고 오씨 등과 함께 전체 조합원 1700여 명의 명단을 빼내 선물을 돌리는 등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함평경찰도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함평축협 조합장 임모(52)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서 시가 3만5000원 상당의 사골선물세트를 건네는 등 총 103차례에 걸쳐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다.

경찰은 지난 2월 조합장 임씨가 사전 기부행위를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받고 시 압수수색을 실시, 임씨가 자신의 차량에 사골 선물세트를 옮겨 신는 장면에 담긴 CCTV 영상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조합장 임씨를 도와 사전 기부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이 있는지 등 여지를 수사하고 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 남편 시신 일주일 방치

#### ‘정신분열증’ 아내 조사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지 일주일 이 지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0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J아파트에서 일주일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모(54)씨의 시신을 경비원(72)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비원은 숨진 박씨의 집에서 약취가 난다는 이웃 주민들의 연락을 받고 집에 찾아가 보니 박씨의 아내(48)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지난해 식도암 수술을 받은 뒤에도 술을 계속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신분열증세로 입원 전력이 있는 아내가 “남편이 일주일 전에 죽었다고 해서 이불을 덮어줬다. 사망한 줄 몰랐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자신의 신병 때문에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부검 등을 통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 초등생 추행 전직교사

#### 벌금 1500만원 선고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박우우)는 1일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67)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당시) 교사가 교실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반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10시 40분께 전남 A초등학교 교실에서 B(7)양을 무릎 위에 앉히고 양손으로 팔과 허벅지를 쓰다듬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계약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대학 교정서 남의 집 진돗개 훈련시키다 물려 응급실행



○...20대 남성이 대학교 교정에서 남의 집 진돗개를 훈련시키려다 물려 응급실행.

○...3일 영암소방서에 따르면 A(20)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20분께 영암군 학산면 동아인재대학교 교정에서 진돗개 한 마리를 발견한 뒤 훈련을 시키려

다 손가락을 물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것.

○...이 대학 에원관련 학과 휴학생으로 알려진 A씨는 개주인과 잘 아는 사이로 개를 훈련 시키려다 물렸는데, 119 구급대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

/영암=문병선기자 moon@kwangju.co.kr

# 부동산 경매! 특수 물건만이 정답이다!

#### 특수비법 배우실 분!

- ✓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취급
- ✓ 1대1 실전 개인 전수
- ✓ 주 1회 3개월 교육
- ✓ 교육 / 임장활동비 사무실 사용료(1년) 등등 2200만원
- ✓ 단, 상담 후 본사 결정

#### 공동투자 하실 분!

- ✓ 자금 - 1억원 이상
- ✓ 기간 - 1년 정도
- ✓ 수익 - 연 20% 정도
- ✓ 방식 - 3대1 방식
- ✓ 보장 - 소유권 이전

#### 낙찰물건에 투자 하실 분!

- ✓ 1억원 이상
- ✓ 제1순위 근저당 설정
- ✓ 낙찰물건에 80~90% 정도
- ✓ 기간 - 상담 후 결정
- ✓ 이자 - 연 10~12% 확정

#### 특수비법 전수하고 활동하고 계신분들!

- 건설회사 사장
- 제조업 사장
- 가정주부
- 전, 경찰서 서장
- 공인중개사
- 광주대학교 학생
- 전, 소방서 서장
- 경매학원 원장
- 채권회사 부장
- 명품회사 사장 등 다수 상담시 오픈합니다!
- 석재공장 사장
- 전, 은행 지점장
- 장례식장 사장
- 전, 도청 직원
- 기사자동차 직원
- 오회화장품 이사
- 아주커 치킨 사장
- 입시학원 원장
- 주유소 직원

부동산 경매 투자 전문회사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 (상담예약 요망)